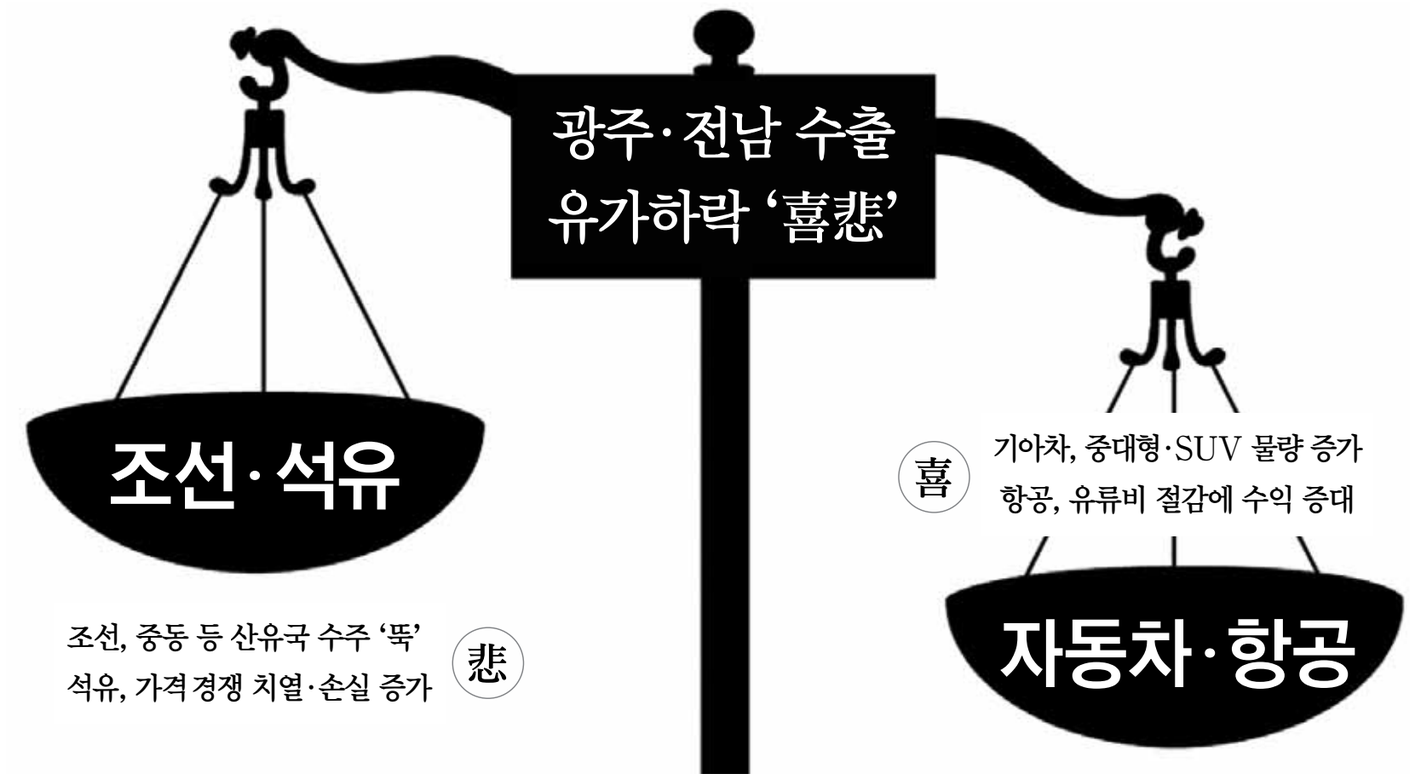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조선·석유화학 등 광주·전남 주요 수출 산업이 또다시 밀어닥친 초저유가에 긴장하고 있다. 자동차·항공·정유 등 일부 산업이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로 하락한다면 국내외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15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조선업계는 저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동 등 산유국의 플랜트 공사 수주가 쉽지 않은데다 해운업계도 경기불황으로 일감이 줄어 선박 발주를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어두운 상태라며 하소연했다.

실제로 전남 서남권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수주도 올해에는 다소 진전되고 있으나 최고 정점이던 지난 2007년 75억 달러 수주량에 비해선 반토막 수준에 불과했다. 또 품목별 수출액에서도 올 1~5월 전체로 전년대비 33.4%나 줄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유가 회복 없이는 조선소들의 실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유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시추 설비는 물론 상선 등의 취소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업계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석유화학의 경우 범용제품에서 중동, 중국 등 신흥국과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특화제품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 제품이 엔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수출이 감소해 고전해왔다.

일각에서는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의 정제마진 증가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며 변동성이 커지면 재고 손실 규모가 늘어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석유정제는 2013년 이후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했다.

유가하락으로 덕을 보는 업종도 있다. 자동차업계는 일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항공업계도 항공유 가격 하락에 따라 큰 이익을 보고 있다.

기아차 등은 엔저로 인한 수출감소를 만회할 수 있는 호기라며 반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엔저에 따른 일본 경쟁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광주의 자동차 수출은 감소한 반면 일본은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기아차측은 "최근 유가하락으로 소비자들이 소형차보다는 중대형차를, 세단보단 연비가 다소 떨어지지만 실용성이 뛰어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찾는 경향이 있어 수출전망도 밝은 편이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3년만에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항공업계 역시 유가하락에 따른 유류비 절감으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엔저 지속이 광주·전남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수출이 아시아와 중동시장에서 각각 20% 이상 급감했고 타이어·석유·철강 등 광주·전남 주요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제조업 비중, 광주는 자동차 전남은 운송장비 높아

호남통계청 '1999~2013년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변화상'

광주, 업체 늘었지만 대형사업장 줄어…출하액 22조 증가

전남, 식료품 위주서 운송장비로 변화…출하액 99조 늘어

최근 15년간 광주의 제조업 분야 주요 업종은 자동차와 트레일러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은 식료품 분야 제조업체는 감소했지만 운송장비와 금속가공업이 성장했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1999~2013년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변화상'(종사자 10인 이상)을 살펴보면 광주지역 사업체 수는 15년 전 678곳에서 1086곳으로 60.2% 증가했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분야로 149%가 늘어났다. 기타 기계 및 장비(71.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68.1%), 금속가공(53.6%) 업종 등이며, 의복 및 모피 업종은 64%나 감소했다.

광주의 제조업 상위 업종은 1999년 기타 기계 및 장비·금속가공·전기장비 순에서, 2013년 기타기계 및 장비·금속가공·자동차 및 트레일러 순으로 바뀌었다.

이 지역 제조업 출하액은 2013년 29조원으로 1999년보다 22조원 늘어 290% 증가했다. 출하액 증가 주요업종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799.5%), 전자부품(391.2%), 금속가공(326.1%), 기타기계 및 장비(260.7%) 등이다. 또 광주의 5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이 기간 감소했지만 중소사업장은 늘었다.

1999년 대비 2013년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장 규모는 종사자 100~199명으로 20곳에서 61곳으로 증가했다.

반면, 500명 이상 규모 사업장은 11곳에서 9곳으로 줄었다.

전남의 사업체 수는 1999년 1147곳에서 2013년 1511곳으로 31.7% 증가했다. 1999년 대비 2013년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기타 운송장비로 301.6%나 늘어났다. 다음으로 1차금속(272.7%), 금속가공(96.8%) 순이며 펄프 및 종이제품과 섬유제품, 식류품 업종 등은 42.3%, 20.6%, 17.2%씩 감소했다.

전남의 제조업 상위 업종은 15년 전에는 식료품, 비금속광물, 금속가공,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순이었지만 이후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금속가공, 비금속광물 순으로 변화했다. 2013 전남의 제조업 출하액은 126조원으로 1999년 대비 99조원 늘어 372.8% 증가했다. 구체적인 통계표는 국가통계포털(http : //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32.97 (+5.15)	금리 (국고채 3년) 1.73% (0.00)
↑ 코스닥 639.78 (+9.41)	↓ 환율 (USD) 1183.40원 (-1.40)

금호타이어 노조 17~18일 부분파업

생산 차질 미미 … 교섭 장기화 우려 파업 수위 촉각

금호타이어 노조가 17~18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15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조별로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올해 9월 20일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해 파업을 유보하고 그동안 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일시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것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일시금을 높여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는 부분 파업 이후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회사 안팎에서 파업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 실제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사측은 이번 부분 파업이 교육시간 등을 활용한 것으로 생산차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상록회관 농성주택조합 2차 조합원 모집

조합원 1차 모집을 성공리에 마친 농성지역주택조합이 최근 업그레이드된 홍보관을 개관하고 2차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광주의 중심인 옛 상록회관부지에 위치한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6~29층 아파트 10개동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74㎡A, 74㎡B, 84㎡A, 84㎡B로 842세대 예정으로 중소형 대단지 프리미엄을 자랑한다.

벚꽃 군락지와 녹지시설 등 우수한 자연환경이 장점인 단지는 인근에 광주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등 편의시설 인프라가 풍부하다.

시공예정사는 SK건설이다. 상록회관 농성지역주택조합은 분양과 동시에 토지가 확보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청약통장의 유무나 청약 경쟁순위에 관계없이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또 동호인과 직장동료 등 특수관계인이 함께 입주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없어 사업승인 후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문의 062-529-10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장에 이흥묵 고양유통 사장

농협광주지역본부 본부장에 고양유통 이흥묵 사장이 선임됐다. 또 농협은행광주영업본부장은 김귀남 목포신안지부장이 선임됐고, 이근 전 농협광주지역본부장은 중앙회 상무로 승진했다.

NH농협금융지주는 15일 부사장과 상무 등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

오병관 재무관리 담당상무가 부사장에, 허원웅 기획조정부장이 재무관리 담당상무에 각각 선임됐다.

강진출신인 신임 농협광주지역본부 이흥묵 본부장은 농협중앙회 목포유통센터 사장, 농협중앙회 광주기획총무팀 과장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